

여야 선대위, 광주서 지역위원회 띄우며 세걸집 경쟁

민주 균형발전·통합위원회 출범
오늘 이해찬 참석 미래시민위 가동
국민의힘 예비역 장성 30명 참여
국가안보특별위 호남본부 출범

대선을 50일 앞두고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들이 산하 지역 위원회들을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대선 분위기를 띄우고 세 걸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별로 선대위 각종 산하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조직 결집과 함께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출범식과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두관, 송기호 공동상임위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인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허민(전남대 교수) 광주시위원장은 첨단산업 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수도를 광주 지역 발전의 정책기조로 내건 광주시 실정에 맞는 주요 균형발전 정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관영)도 이날 북당 인사들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북당 인사 환영회를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면담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도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재명·

이낙연)는 지난 5일, 민주당 선대위 미래소통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10일,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13일 광주에서 연이어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뜻을 모으는 등 세 걸집에 올인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광주에서 선대위의 각종 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불모지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호남본부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국가안보특별위 호남본부에는 예비역 장성 30명·예비역 영관급 장교 100명·예비역 위관급 장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안보특별위 호남본부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안보·국방 정책을 지원한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다함께여는세상본부, 내일을 생각하는 대학생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등도 출범하며 지지세 걸집에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다수의 위원회를 띄우며 참여자들에게 직함과 역할을 부여하고 대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의미있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노리고 있는 만큼 지역 위원회 행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빙의 승부인데, 양당에서 호남지역 지지율을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각종 위원회에 많은 인사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의 많은 정치권 인사들도 선대위 직함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나기 위해 18일 합평 자택 '호점몽가'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 교수와 손을 맞잡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안철수 손 맞잡은 최진석 교수...상임선대위원장 수락

합평 자택 '호점몽가'서 만남
安, 설 연휴전 3강 구축 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합평을 찾아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안 후보는 전남에 연고를 두고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최 명예교수를 삼고 초려 끝에 영입한 데 이어, 19일에는 충청권을 주 맡부터는 사흘 일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뒷받침 민심에 균열을 내고 지지세를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연일 도덕성 결함·무속인 캠프 참여 등 각종 논란으로 언론의 삽자포화를 맞은 2강 후보 모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중도 및 부동층 지지세를 흡수, 설 연휴 전까지 대선 판도를 '3강' 체제로 바꾼다는 목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최 명예교수가 머무는 합평의 자택 '호점몽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눈 뒤 "오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찾아 뵈었다"며 최 명예교수 영입 사실을 알렸다. 최 명예교수는 앞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시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안 후보는 "(최 명예교수가) 캠프의 사상적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환경과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중에게 열심히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안 후보에 대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도덕적 결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추켜세운 뒤 "도덕적 결함이 하나도 없는 분만이 대한민국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는 이

재명·윤석열 후보를 "막장 후보"라 부르며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안 후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안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명예교수 영입을 위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합평을 찾은 안 후보는 19일 대전을 찾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지역의 장기 비전을 담은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말을 포함한 22~24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부인 김미경씨와 함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는다. 부산 출신인 안 후보는 대선 후보 자신이 유일한 부울경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며 3강 도약을 위해 중도·부동층 표심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7일? 31일?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날짜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날짜를 두고 여야간 혼선이 빚어졌다. 앞서 두 후보측은 설연휴 이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날짜를 놓고서는 다시 신경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시간여 뒤에 설연휴 기간에 토론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중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을 설날 전날 밤(31일)에 하자"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D-50 다자대결 윤석열·이재명 오차범위 접전

칸타코리아 윤 32.8%·이31.7%
엠브레인퍼블릭 윤 35.9%·이33.4%
대선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18일 잇따라 나왔다.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 32.8%, 이 후보 31.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3.1%포인트)에서 초접전 흐름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안 후보는 전 조사보다 6.0%포인트 올라 지지율이 두 배가량인 12.2%로 상승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포인트 감소한 2.7%를 기록했다. 조사는 휴대전화(88.2%)와 집전화(11.8%), 임의 전화 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 35.9%, 이 후보 33.4%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보다 윤 후보 지지율은 5.9%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6.0%포인트 하락했다. 안 후보는 5.5%포인트 상승한 15.6%, 심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7.1%다. 조사는 휴대전화(85.2%)와 집전화(14.8%), 임의 전화 걸기(RDD)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는 43.4%, 이 후보는 36.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안 후보는 11.7%, 심 후보는 1.8%다.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9%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실종된 분들과 사망하신 분, 고통받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정동 아파트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진단과 더불어 안전과 품질을 대폭 강화하여 우려와 불신을 끊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절박한 심정과 환골탈태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고 안전 최우선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일동